

[자료소개]

釜山·東萊 遊記 자료에 대하여(2)
-조선후기 부산 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정경주 /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目 次

- | | |
|-----------------------|--------------------|
| I. 서설 | 11) 東海 金勳의 「南遊錄」 |
| II. 부산 동래 기행 시문 해제(2) | 12) 小隱 李禹善의 「南遊錄」 |
| 8) 可畦 趙翊의 「嶺南錄」 | 13) 韓齋 鄭奎榮의 「釜山紀行」 |
| 9) 和山 李馨烈的 「東遊錄」 | III. 소결 |
| 10) 蕉史 洪健厚의 「左遊記」 | |

I. 서 설

부산 동래 지방과 관련된 기행 시문의 작품 및 작가의 분포 및 시대에 따른 대체적인 내용의 추이에 대하여는 앞서 대략 개관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기행시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는 앞의 글에서 미처 논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기행시문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여행자의 눈에 비친 특정 지역의 특별하고 중요한 관심의 표적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다. 여행자는 대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특정 지역의 여행 과정에서 그들이 평소 거주 생활한 지역에서 감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물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이러한 관심 집중은 곧 여행의 성과로서 새로운 견문과 지식의 확장과 그에 대한 감흥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여행자의 입장에서 특정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도착 주민에게는 일상의 평범한 사물이라 할지라도 여행객의 눈에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비춰진다면, 그것이 자연 경관이든 인문 환경이든, 역사 고적이든 모두 지역적 특성을 담보하는 문화적 자산인 것이다.

기행시문은 여행자의 성격과 관찰 시각과 여행지에서 느낀 감흥에 따라 시문 하나 하나가 문화적 정서적 積層을 이룬다. 기행시문은 여행자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경관에서 포착한 감동을 시문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와 경관은 시대를 넘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현장이 된다. 따라서 역대의 기행시문을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적층을 확인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를 정립하는 기초 작업이라 할 것이다.

II. 부산 동래 기행 시문 해제(2)

8) 可畦 趙翊의 「嶺南錄」

可畦 趙翊(1556-1613)은 경상도 상주에 세거한 풍양조씨로 자가 棊仲이다. 그는 형 黔澗 趙靖과 함께 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임오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조 무자년(1588)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란이 끝난 기해년(1599) 예조정랑으로 발탁되었다가 이조정랑을 역임하고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 시장원필선이 되었다. 그는 신축년(1601) 여름에 體察使 李德馨이 영남 남부 해안 지방의 방비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순행할 때 종사관으로 수행하였는데, 『嶺南錄』은 이 때의 여행 기록이다.

『嶺南錄』의 여행 목표는 임진란 당시 왜군의 거점이 되었던 부산 지역에 새로 수축하고 있었던 부산성의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데 있었으므로, 여행지역은 부산과 인근의 경상우도의 兵營이 있었던 창원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체찰사 일행이 당시 부산성 공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승려 四溟堂 松雲을 밀양에서 만나, 낙동강을 따라 뱃길로 부산에 도착한 뒤에, 부산성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다시 낙동강 하류를 건너 大渚島를 거쳐 창원 병영에 들린 다음, 다시 귀환하는 길에 들린 밀양에서 여행 일정이 끝난다.

『영남록』의 여행 기록은 대개 신축년(1601)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까지 걸쳐 있는데, 여행 과정의 감흥은 17題 26首의 시로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이덕형의 시 2수와 송운의 시 1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덕형의 시는 모두 『漢陰集』에 수록되어 있으나, 송운의 시는 지금 전하는 『四溟堂集』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직후 부산지방을 여행한 최초의 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술년(1598) 11월 왜군이 철수하고 조명연합군이 부산에 진입한 이후, 임진란 이전에 있었던 부산성의 준폐와 임란 도중에 주둔한 왜군 본영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던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지금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록의 시에 ‘새로 부산성을 쌓았다[新築釜山城]’, ‘도위와 순찰하는 병정의 딱딱이 소리 들린다[都尉巡兵柝有聲]’, ‘보라매 천마리가 외딴 성을 에워쌌다[蒼鷹千軸擁孤城]’, ‘개인 날 함께 회칠한 성가퀴에 오르니, 대마도의 산들이 또렷하게 분간된다[同登粉堞乘新霽 馬島諸山歷歷分]’ 등의 구절이 있으니, 대마도가 보이는 곳에 성을 새로 쌓고, 천여 명의 병사가 주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9) 和山 李馨烈의 「東遊錄」

和山 李馨烈(1789-1860)은 거창에 세거한 연안이씨로 자가 而大이다. 그의 선조 가운데 조선 전기 延原君 李崇元이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평안도관찰사 형조 병조 이조 판서와 좌우참찬을 역임하고 좌리공신으로 책봉되어 지례의 도동서원에 향사되었고, 그 아들 九畵이 직장과 감찰을 역임하였으며, 그 아들 雙淸堂 繼俊이 중종 때 생원으로서 기묘사화 무렵에 居昌의 熊陽面 東湖로 은거하여 용천서원에 향사되었고, 그 아들 求仁이 문과에 급제하여 곤양 울산 등의 고을살이를 하였으며, 그 아들 희남은 임란 때 창의하여 대호군의 직책을 받았다. 조부 麟原은 戊申變에 창의하였다. 그는 정조 기유년(1789) 10월 28일에 웅양면의 화동리에 태어나서 철종 경술(1850) 5월 19일에 몰하였다. 그는 가학으로 경전에 박통하였으나,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때때로 원근의 山海에 유람하였으며, 향리에서는 文廟의 都有司와 掌議 등에 여러 번 천거되었다. 그의 문집은 玄孫 至均이 기해년(1960) 정월에 成純永의 서문을 받아 석인으로 간행하였다.

『화산유고』에는 「東遊錄」 외에 「遊山海記」, 「南遊錄」 등의 유기가 있고, 시편들은 대개 이들 유람 과정에서 지은 것이다. 「동유록」은 2,146자의 유기로, 현종 병오년(1846) 4월 13일 출발하여 부산 동래를 유람하고 돌아가 5월 초6일 양암재에 숙박하고 그 다음날 귀가할 때까지 24일 동안의 여행기록으로, 여행의 목적을 동래 부산의 풍물 유람에 두었다. 『화산유고』에는 동유기행에서 지은 시로 渡泊津에서 次陽巖齋韻까지 모두 47수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산 동래와 그 인근 고을의 유람 행적과 관련된 시 25수만 골라 뽑았다.

거창 熊陽面 和同 — 加祚 — 山際峴, 합천 井洞 — 합천 涵碧樓, 伊泗里 — 馬骨峴, 茂谷, 초계 九曲嶺, 의령 石合新村 — 洛山書院, 泊津, 창녕 高谷 — 영산 道旨洞, 영산읍 — 中峰書院 — 鼎谷, 德谷 — 밀양읍 嶺南樓, 三浪浦, 三江書院 — 양산 龍塘, 溫洞, 物錦津, 黃山驛, 狐津, 金井山城 서문, 북문, 梵魚寺 — 溫井, 동래읍, 萬德峴, 구포 — 花丹(하단), 明地島, 다대포, 夜望臺 — 沒雲臺 — 懷遠館, 花丹(하단), 구포, 出頭村 — 坪光浦, 立巖津, 김해부, 수로왕릉, 如意峴, 元旨洞 — 自如驛, 창원, 마산 檜原書院, 觀海亭 — 마산 漕倉, 月影臺, 漆園 舞沂 何換亭 — 칠원 上浦 — 歧江浦, 영산 石谷 — 초계 九曲嶺, 합천 資外村 — 舟泊嶺, 榆項嶺, 蓑村, 平溪 — 籠山亭, 女妓潭, 白蓮庵 — 馬嶺, 佳巫里, 陽巖 — 和同

이 기행 기록은 특이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후기 부산 지방 여행객에게 평소 유람의 주요한 표적이 되었던 부산진성의 영가대와 왜관이 유람 과정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유람객이 영남 내륙에서 동래 부산지방으로 진입할 때 대개 낙동강변의 구포를 거쳐 만덕 고개를 넘어 동래로 들어오는데, 이 여행자는 이 경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물금에서 호포를 거쳐 곧장

산길을 택하여 금정산성 서문과 북문을 거쳐 범어사로 내려왔다. 온천과 동래읍을 유람한 여행객은 곧장 만덕고개를 넘어 김해로 향하려고 하다 걸음을 돌이켜 다대포로 향하여, 물운대와 야망대를 유람하였다.

10) 蕉史 洪健厚의 「左遊記」

이 기록은 고 탁민 류탁일 선생 소장의 필사본 『蕉史稿』에 들어 있다. 蕉史는 철종 갑인년(1854) 8월 永川郡守로 부임하여 병진년(1856)까지 재직하다 청도군수로 옮겨 가서 무오년(1858)까지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병진년 2월 20일 경상관찰사였던 海藏 申錫雨(1805-1865)가 경상도 일원을 순시할 때 인부와 말을 동원하는 담당자인 夫馬差員으로 차출되어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순찰사가 지은 시문과 자신이 지은 시문을 합쳐서 수록하여 놓았다.

신석우는 평산신씨로 자는 聖如이며 호를 海藏이라 하였는데, 이 초고본에서는 호를 會園이라 하였다. 그는 순조 34년(183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검열, 사간원정언, 용강현령, 부교리·병조참판·우승지·양주목사·대사성·이조참의·승지·이조참판 등을 거쳐 철종 6년(1855)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철종 8년(1857) 대사헌, 이듬해 한성부판윤, 그 이듬해에 형조판서와 예조판서에

1) 홍건후의 영천군수 재직 연한은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嶺南邑志』 영천군 '宦蹟'조에는 '甲寅到 丁巳清道移'라고 하였는데, 같은 책의 청도군 환적조에는 '丙辰到 戊午因繡啓罷'라고 하였으니, 옮겨간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생각건대 병진년 연말에 청도군수로 옮겨간 것을 기록자가 이듬해 연초에 옮겨간 것으로 착각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올랐다.

「좌유기」는 병진년 봄 경상좌도 일원을 순시한 기록이다. 초사 일행은 2월 21일 대구감영을 출발하여 칠곡의 가산, 가암, 군위 효령창, 22일 군위 두읍, 비안, 23일 용궁을 거쳐 안동 영벽정, 24일 풍산을 거쳐 안동부로 가서 관왕묘, 태사묘, 영호루 등의 고적을 둘러본다. 25일 도산서원에서 백일장을 개설하고, 27일 진보현을 거쳐 28일 영덕 임원령을 넘어 용담, 청심루를 보고, 29일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보경사에 이르고, 3월 초1일 내영산을 들렀다가 옥산서원에서 숙박하였다. 초2일 경주부에 들렀다가 초3일 울산 반구대를 거쳐 초4일 통도사를 거쳐 양산군을 통과한 뒤 초5일 동래에 도착한다. 동래에서는 충렬사, 부산진, 영가대, 다대진, 몰운대, 명지도를 거쳐 초7일 낮에 김해부에 도착한다. 김해에서는 연자루와 함허정, 수로왕릉, 허왕후릉을 둘러보고, 초8일 낮에 삼랑창에 도착하고, 그날은 밀양부에서 숙박하고, 초10일 청도 유천역을 거쳐 청도에서서 숙박한 뒤, 11일 경산현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60리 길을 떠나 본읍으로 돌아간다. 전체 노정의 기록을 모두 수록하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울산 반구대 이후의 기록만 수록한다.

「좌유기」는 경상도관찰사의 도내 시찰을 수행하면서 남긴 기록이므로, 19세기 중반 관원들의 지방 행차와 관련하여 일어난 몇 가지 특징적인 장면들이 포착되어 있다. 그 중에서 관찰사 일행이 영가대를 지나 왜관을 거쳐 갔는데, 왜관의 왜인들의 복장을 묘사한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왜관을 지나자, 왜인들이 길가에 나와 마중하였는데, 머리에는 착용한 것이 없고 작은 상투 하나에다 단지 두루마기로 몸을 가렸다.

간혹 가사를 걸친 자도 있었는데 몸의 살결이 많이 노출되었다. 신고 있는 짚신이나 나막신에는 모두 뒷축이 없었다. 환도나 단도를 차고 있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간혹 우리나라 말을 배운 자가 있는데, 모두들 우러러 보고 웃으며 부러워하는 뜻이 있었다.

이들 일행은 다대포에서 육군과 수군의 야간 훈련을 행하였다. 이 또한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다.

야간 조련[夜操]를 관람하였다. 배에서 총포를 놓으면 성 위에서 총포를 놓고, 성 위와 물가에서 일시에 횃불을 들어 올렸다.

종사관인 蕉史는 이 장면을 시로 형용하여 “통소와 북소리 일제히 울리며 그림배를 띄우고, 한 가닥 횃불에 온 성이 잇달아 응하네. 잠깐 사이 일천 그루 진주 나무가 반짝거리니, 위 아래 물과 하늘이 온통 붉구나[簫鼓齊鳴泛畫船 一枝火應一城連 須臾照耀千珠樹 上下通紅水共天]”라고 하였다. 바다건너 외적의 침범에 대비한 야간 훈련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해변의 꽃놀이 놀이를 연상하게 한다.

11) 東海 金勳의 「南遊錄」

김훈은 광산김씨로 자는 子元, 호는 智藏齋 또는 東海라고 하였다. 그는 전라도 함평에서 태어나 錦山 桐谷의 錦谷 宋來熙에게 수학하고, 肅齋 趙秉德, 鼓山 任憲晦, 蘆沙 奇正鎭 등의 숙덕을 두루 찾아보았으며, 경인년 4월에 영남기행을 하였다. 그는 평생 은거 강학에 종사하였으나, 장덕을 찾아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東

遊錄, 華陽錄, 黑山錄, 天冠錄, 南遊錄, 北遊錄, 沃川錄, 訪舊錄 등으로 구성된 八遊錄을 남겼다.

『남유록』은 전문 5,365자에 달하는 장편 유기이다. 필자는 경인년(1890) 4월 초순에 전라도 함평 나산의 본가를 나서서 8월 그믐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꼬박 5개월 동안, 함평에서 부산까지 오고 간 여정을 간략하게 간추려 적었는데, 그가 거쳐 간 노정은 경상남도 내륙의 주요 고적은 물론 특히 남해안 지역의 명승지를 포괄하고 있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을 연결하는 일련의 관광 노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 다음은 이 유기의 여정과 여행 도중에 들린 주요 명승지이다.

함평 나산 — 광주 평장동 — 창평 송강정, 식영정, 소쇄원 — 동북 물염정 — 순천 송광사 — 선암사 — 구례 화엄사 — 섬진강 연곡사 — 칠불암 — 삼신동 — 쌍계사 — 화개동 — 하동 악양 — 청학동 — 진주 월형 — 진주 축석루 — 진해 칠원 창원 — 월영대 — 마산포 — 김해 함허정 연자루 수로왕릉 허후릉 — 초선대 — 칠점산 — 삼차강 — 구포 나루 — 부산 — 정공단 — 자성대 — 청관양관 왜관 — 정묘 — 동래객사 — 송공단 — 온정 — 범어사 — 통도사 — 표충사 — 밀양 영남루, 아랑각 — 점필재 유적 — 밀양 무안 사명당비각 — 영산 — 의령 세간, 모의 — 삼가 토동 — 뇌룡정 — 황계폭포 — 환아정 — 단성 문익점 묘소 면화시배지 — 수월동 — 용암 — 단속사지 — 도구대 — 고마대 — 산천재 — 대원사 — 덕천서원 — 월형 — 강루리 — 단성 적벽 — 배양리 — 사천 구암 대관대 — 옥천사 — 고성 — 통영 세병관 — 총렬사 — 착랑교 — 용화사 — 고성 — 상족암 — 남양촌 — 삼천포 — 창선도 — 지족진 — 금산 — 상주 — 미조 — 용문사 — 흘포진 — 순천 흥국사 — 환선정 — 동북 — 화순 — 함평

동해 김훈의 남유기행에는 동북의 물염정에서부터 남해 금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48수의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산 동래와 그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마산포와 밀양 지역까지의 시 10수만 뽑아 실었다.

동해 김훈의 남유기행은 개항장 부산을 유람의 최종 목적지로 하였지만, 전라남도 함평과 광주에서 경상남도의 내륙과 해안 일원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의 주요한 명승지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것은 역시 개항장 부산의 풍경이다. 이 여행자는 밀양에서 낙동강을 배를 내려와 구포에서 내리는데, 이 무렵 구포나루에는 이미 화륜선이 다니고 왜인들이 내왕하며 호남과 영남의 상인들이 왜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었다. 여행자는 자성대를 거쳐 부산항에 설치된 왜관과 청관과 양관을 관람하였다.

부산을 거쳐 연안의 산허리에는 흰 색의 비석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모두 왜인들의 조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자들이다. 왜관 가까이 해변에 淸나라 사람의 집이 두 채 있는데 매우 사치스러워 우리나라의 기와집과 같지 아니하였다. 가장 아래 물가에 접하여 집을 지은 것이 왜관인데 또한 매우 사치하여 기둥과 서까래가 금은이고 창과 벽이 유리였다. 동서 두 왜관이 즐비하게 접속되었고 사람과 물자가 또한 매우 번화하였다. 대저 淸人과 洋人과 倭人의 복장 색깔은 모두 청색이나 흑색인데, 淸나라 사람은 두발의 사방 가장자리를 깎고 가운데를 묶어 뒷발꿈치까지 드리우고 끝에다 땀기를 달았다. 왜인은 남자는 모두 머리를 남김없이 깎아서 우리나라 중 모양과 같고, 여자는 머리카락을 남겨 뒤로 쪽을 틀었는데, 이빨을 검게 칠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다.

김훈의 남유기행에서 특기할 것은 부산지역은 아니지만, 통영의 충열사 인근의 명승지와 남해 금산의 주요 경관과 견문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통영에서는 들은 鑿梁橋와 長華紅蓮의 고사 및 海坪烈女의 고사는 이 시대에 전승된 민간설화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 있는 자료이다.

12) 小隱 李禹善의 「南遊錄」

小隱 李禹善(1858-1924)은 경북 청도 柳谷에 세거한 철성이씨로 자가 亨伯이다. 그는 철종 무오년에 慕隱里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문학에 종사하다가 학문에 침잠하였다. 渠菴 李在緝, 石皓 李鍾夏, 然石 李奎欽, 省軒 李炳憲 등과 교유하였다. 서쪽으로 안동의 臨淸閣 歸來亭에 유람하고 남쪽을 동래 온정과 부산 절영도에 유람하였다. 그는 기미년(1919) 8월에 동래 부산에 유람하였는데, 그 기록으로 「남유록」과 8수의 시가 있다.

소은의 「남유록」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부산항 주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의 여행은 이전과 달리 기차와 자동차가 주요한 이동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주요한 관람 대상은 새로운 도시의 변화한 풍경이다. 다음은 여행자가 구포역에서 하차하여 관람한 구포시장의 풍경이다.

하루 종일 관람하니 남쪽 지방의 좋은 구경거리가 구포 한 구역에 있다. 가만히 살펴보니 한켠의 紙房[지물점]은 높고 큰 데다가, 기계소와 사무실이 한쪽이 벌여져 있는데 대략 백여 칸이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묘한 형상 괴이한 물건은 모두 구리나 철로 만든 기계와 자물쇠였고, 갈대 풀과 잡물 등 모두 水火의 기운으로

생산한 종이였다. 조화의 기미는 보아도 측량하기 어렵다.

다음날 소은은 다시 기차로 부산항에 도착한다. 부산항에서 하루 밤을 보낸 그는 도회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마침 영도의 주인 김성철을 만나, 곳곳마다 가리키며 보여주는데 눈에 가득 보이는 광경이 좌우에 찬란하게 빛났다. 산을 깎아내고 바다를 메워서 수 백 길의 평지를 만들었으니, 비용의 한량 없음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는가? 또한 바닷가에는 나무 청사가 위 아래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오래도록 방황하면서 정신이 혼미하여 안정할 수 없었다. 부두 머리에 화륜선 한 척이 정박하였는데 이름이 고려 환이었다. 봉우리같고 그림같이 하늘 가운데로 치솟아 높고 큰 형상은 입으로 형언할 수 없고 눈으로 모두 볼 수도 없었다. 석유철통을 가서 구경하였는데 창고와 기계가 화륜선 못지 않았다. 성철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대문을 나와 사방을 바라보니 물빛은 하늘에 닿고 달 그림자 땅에 가득한데 해관 10리에 천 집 만 집이 모두 유리 누각이요, 등불이 영롱하고 배들이 바다에 일렁이니, 이날 밤 광경은 끝이 없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대 부산은 내륙 여행자의 눈에 이제 새로운 문명의 이기와 그 신기한 생산물로 단장된 별세계로 형용되었다. 조선의 망국 전후에 일어난 치열한 반일 감정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변화는 매우 조심스레 살펴보아야 할 변화이다.

13) 韓齋 鄭奎榮의 「釜山紀行」

한재 鄭奎榮(1860-1921)은 곤양의 금오산 아래에 세거한 진양 정씨로 자는 致亨이다. 그는 性齋 許傳의 문하에 執贄하였으며,

성재가 별세한 뒤에 侂字 郭鍾錫의 문하에 질의하였다. 그의 문집 권3에는 「釜山紀行」이라는 제목 아래 21수의 기행시가 실려 있다. 기행 시기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낙동교 다리를 지난 것으로 보아 삼랑진의 낙동강철교가 완공된 1905년 이후에 여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재의 「부산기행」에는 일정을 자세히 적은 기록이 없어 그 상세한 노정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시의 제목으로 판단하면 곧 양에서 노량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마산에서 내려, 거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낙동강 철교를 건너 삼랑진을 거쳐 부산역에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도착한 당일 동래 온천에 들러 숙박하고 부산 시내로 나와서 棧橋와 噴水機, 水産館, 鬪牛, 演劇을 관람하고 寫眞을 찍고 부산항 매립지와 야시장을 구경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편의 시 가운데 '棧橋' 시 한 편은 이 당시 부산 부두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눈 아래 늪실늪실 석양이 일렁이고	脚底溶溶漾夕輝
구리 기둥 수 백 개는 신통한 기교 부렸구나.	銅標百架費神機
밤이면 잔교 머리에 배들이 무수히 정박하여	夜泊橋頭船簇簇
청룡과 황작 장식에 깃발을 꽂았구나.	靑龍黃雀揭竿旂

수백의 구리 기둥은 접안하는 배를 매어두기 위하여 부두에 설치한 장치를 가리킨다. 지금으로서는 별로 신통할 것도 없는 단순한 접안 시설에 불과하나, 바다를 매립한 곳에 새로 만든 부두와 부두의 경관이 내륙의 여행객에게는 또한 색다른 풍물로 비취졌던 것이다.

Ⅲ. 소 결

이번에 소개하는 부산 동래 기행 시문은 개항 이전의 여행 기록이 3편이고 개항 이후의 여행 기록이 3편이다. 개항 이전의 기행 시문에는 대개 왜관의 이국 풍물과 온천과 바다와 낙동강 하구의 탈속적 풍치에 여행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개항 이후의 기행 시문에는 개항 이후의 신문물과 새로운 도회지의 경관에 대한 호기심과 경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서너 가지 요소는 20세기 전반기 부산 지방을 여행한 한문 지식인의 여행 기록에 그대로 접속되어 나타나면서,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시 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8 : 可畦 趙翊의 嶺南錄 [可畦先生文集 권6]

辛丑秋以侍講院弼善 出爲李體察使從事官.

次漢陰相公贈松雲韻 [時住嶺南樓]

夢回江閣夜將分 輕浪搖風錦作紋 萬事無成身又病 從知世味薄於雲
名區無處訪繁華 隔岸漁村有幾家 行盡峽中香滿袖 馬頭開遍野棠花

附 元韻

百計無成鬢已華 片心憂國尚忘家 夢尋楊僕平南越 猶誇樓船蹴浪花

又用前韻示松雲

脈脈幽懷自十分 倦眠湘簟展波紋 開牕斗覺心魂爽 爲有清風掃火雲
愁倚江樓對月華 天涯無夢不歸家 風塵半世人便老 雙劍橫腰謾吐花

附 松雲韻

多住蓬萊誦法華 白雲青鶴好爲家 暮年流作沙場客 空恨瑤臺落桂花

此孫上舍宜伯義甲韻

江閣論文喜得君 雨聲欹枕夜同聞 十年南北成何事 慚愧浮生跡似雲

謹酬相公惠韻

無限烟波惱客愁 十年憂國白渾頭 輕舟故試南歸計 非爲湖邊漫浪遊

相公又惠一絕依韻奉和

梅雨來時處處愁 天涯歸客又江頭 非關領得西湖勝 驢背何人強作遊

自凝川放舟直向萊山記所見

飛下龍塘一瞥間 丈夫懷抱此時寬 海門漸近風烟豁 七點三叉次第看

舟中次松雲

三浪水接龍塘去 千仞巖頭樹幾層 領略風烟知有地 扁舟贏得載詩僧

新築釜山城與松雲幹其務 次相公寄韻示雲師

都尉順兵柝有聲 狼烟不起靜邊庭 直將眼界爲天塹 何必區區數仞城

次松雲韻

蒼鷹千軸擁孤城 設險先須擇地形 畫角城中收駭浪 虹旗影裏閉重局
誰憐短鬚侵霜雪 自信孤枕耿日星 宸極此時勞望眼 瘴雲和雨夜冥冥

又次松雲韻

同登粉堞乘新霽 馬島諸山歷歷分 務得人和知有戒 不須徒取堞運雲

七月一日向金海江口 阻風宿島中草間矮屋 僅如斗 與李水使侃
戍枕度夜

倦客今愁風浪生 蠻村猶解出門迎 江分海口三叉闊 山容原頭七點
橫 蘆葦接天泥沒馬 雲霞霾日雨連城 夜投斗屋眠難著 驚却蛟雷近
枕聲 [卽大渚島 梁山地也]

二日路上記所見

七點於人若有期 雲端點點露脩眉 陰晴變態知誰管 添却湖山分外
奇 [體相前爲宣慰使時 有三叉七點渾霾雨 似妬行人著眼看之句. 故
今反其意.]

滯雨檜原營幕寄松雲

萊山勝事散如雲 愁倚風欄苦憶君 疎竹老槐人寂寂 一庭秋雨夜深聞
光陰送盡驛程間 念別唯應鬢髮斑 佐幕無才成底事 逢人踈踏愧浮顏
瘴暗邊城鼓角愁 羈懷無賴獨登樓 寒蟬咽後門還掩 庭雨蕭蕭夜報秋
世故絲棼脫未能 頻年原隰病相仍 明朝又向凝川去 羨爾安閒物外僧

자료8 : 和山 李馨烈의 東遊錄. [和山遺稿 권2]

濯纓子曰“生而瓠瓜一方 命也。”既不能遍觀天下 以蓄其所有 則域中之山川 皆所當探討者. 惟其人事之喜幸也. 余嘗有凌滄海 陟蓬萊之志者 久矣. 歲丙午四月十三日 所懷之人來 遂請行束裝. 午發. 時值清和之氣 令人感覽物之懷矣. 留宿加祚. 十四日 踰山際峴 午饁于陝川并洞柳道源家. 暮宿于心妙朴致英家.

十五日 至邑邸 遇伊泗里金見龍 偕到司倉酒店 勸酒午饁後 到清白祠 審李秉泰眞像後 登涵碧樓 次板上韻. 向伊泗里 宿書齋 次壁上韻. 十六日 朝飯于朴大興從兄家. 行到惻隱酒店 暫憩. 踰麻骨峴 午饁于茂谷周喪人家. 踰九曲嶺 至石合新邨 地是宜寧界也. 宿孫瑀炳書齋. 十七日 午到洛山書院 乃松巖李先生景德祠也. 午饁後 到泊津. 風浪排空 危佈僅到. 宿昌寧鼓谷成喪人家. 十八日 到靈山道旨洞 見李濯請 其子甲麟 則年甫八歲 容儀秀美 其拜客之節 書寫之精 雖老成之人 莫能及焉. 臨別之際 執手撫慰曰 道旨之義 名不虛得也. 兒隨一武之地 拜揖作別 歸來如所失矣. 午到靈山邑邸 爲雨所滯 宿于鄉校 偶吟.

十九日 雨霽 踰嶺 至中峰書院 院號一致堂也. 邨無他姓 一堂居接冠童二十餘人 是皆以申爲姓 齋長申大齡也. 以學徒裹飯 分以饒飢 因雨滯宿 偶吟. 二十日 行到鼎谷 地是密陽也. 暫憩朴基成家. 家雖壯麗 恨無守成之主人. 午到德谷孫生員書齋 適值開接落成之宴 鬪觥之士 盛滿一場 而酒肴極爲浪藉. 觀光後 逢愼榮基 乃士規之族人也. 移宿其家. 二十日 臨別之際 齋錢三錢 寔出情貲. 前有大野長亘七十餘里 盡日行李 只是一邊處矣. 至密陽邑 城堞之逶迤 居民之稠密 亦一都會也. 登嶺南樓 門揭對潮 又東有凌波閣 宏壯之制

廣暢之景 不可俱狀 而第見岸外栗林 江上竹樹 如帶芳魂 寃恨矣。板揭畢齋元韻 遂敬次焉。前渡三浪浦 爲雨所戲 因宿三江象友堂書院 卽閔九齡祠也。次元韻。

二十二日 到梁山龍塘店 飲酒 吟一絕。至穩洞店 渡船 抵物錦津。午膳後 問東萊梵魚寺道里 則主人云三十里焉。過黃山察訪都。望見竹林連山抱野 橫亘數三十許里矣。忽聞渡船鍾聲 朗吟一絕。前渡狐津 登山城 過西門 乃蓬萊金井山也。誤入殘庵 有俗無僧 問路 越北門 有吟。登城俯瞰 則兩峰對峙 樹木陰翳之處 丹樓翠甍 令人森目 數聲鍾磬 隱隱報夕 緩下登臨 乃梵魚寺普濟樓也。次宿處 則因以進飯 極值山間之佳味。問僧山名 則乃鷄吟岑金井山也。山上有井 古有魚矣 今則無焉云。夜宿占數聯。朝後玩寺樓閣 則二十三日也。殿曰大雄 羅漢 冥府 昆盧 禪齋 列立左右 定是諸佛之大刹。玩畢 緩下 幾至十餘里 而到溫井 則男女雲集 盡是他鄉之人矣。數間浴室 中隔有別 有房有廳 廳下方築熟石 穿石作穴 以通泉源 盈科則塞穴 以注女湯之科焉。石間必有通源之道矣。湧湧射出 極爲溫暖。因浴偶吟後 到東萊府 遍觀樓觀 則南曰無憂樓 客舍曰蓬萊館 迎仙門。衙門曰受降門 息波門。知是海關要鎮之義歟。午後踰萬德峴 到龜浦 宿于出頭村朴生員家 地是梁山界也。

二十四日發行 欲向金海 更有觀瀾之志 復渡龜浦 偶吟。午膳于花丹市店。望見明地島 而暮到多大府 登野望臺。臺前滄海 一望無際 而重重海島 森列遠近 游目四顧 東萊勝狀 在多大一海也。居民之多 朝海之大 以此稱焉歟。戰船數隻 泊於城隅 來往商船 泛泛簇簇 門曰壯關 則東維要津處矣。登臺之時 騷人游客 各異覽物之情 而歌於斯 詩於斯 不知日之將暮 而徒增望洋之歎。已而醉吟數絕。宿邑店。終夜雨下。

二十五日 朝後乍晴 有更上窮遠之眺。問沒雲臺 則指府南十許里而一脈連亘入雲海間 隆隆作四五峰 有勝景云。吾一行 乃挾單衣杖策 促步登臨 則有碑閣 卽壬辰忠臣鄭運殉節處也。有韻 因次。覽碑後 前步數武之地 兀立峰顛 則兩峰石角 蹲蹲對起 抱海作坎 名曰龍湫。萬頃波濤 澎湃怒吼 輪轉坎壈 則雷轟電擊 掀動山岳 眩人心目 不可俯瞰。此是鄭運殉沒之湫也。斯臺之名 以雲稱運 音相似也 則知是吳江白馬之潮 驅千載不平之怒氣歟。瘴霧漲天 千萬氣狀 難可俱述。西通金海 東極馬島 可知地盡之頭也。銀盤青螺 點點遠島 巨濟熊川某某之處 茫然四顧曰 岳陽洞庭之景七百里云云 而此海之長 不知其幾千萬里也。於是浩然有登蓬萊 凌滄海之氣像。返于宿所 因雨信宿。二十六日 登懷遠館 次韻。冒雨到花丹市 午饔。復渡龜浦 宿出頭邨成生員家 卽梁山界也。

二十七日 渡坪光浦 又渡立巖津 卽金海三叉江也。入金海府 樓曰駕洛舊都 館曰盆城。燕子鎮南 樓臺不可殫記。府西數里許 林樹陰翳 樓閣隱映之中 有陵嵯峨 乃首露王陵也。迎神門 及安香祠宇諸閣 翼然左右 儼然若王靈之陟降矣。吟一絕。暮過如意峴 宿元旨洞洪龍源家。二十八日 午饔于自如驛 過昌原府 向馬山浦 宿檜原書院 卽寒岡鄭先生妥享之所 而牆外有書堂 先生逍遙之處 而又有觀海亭 聚白堂 亦山海之勝狀處也。吟一絕。

二十九日 玩馬山浦市廛。漕倉之築 極爲精妙 而居人之稠 泊津之商船 不知幾千艘也。戰船一隻 閑泊城隅 徒見山海清晏之氣像。問月影臺 則在十里許也。一片石立 名得世傳 而臺邊有柿木 不大不老 卽崔孤雲手植云也。近海之人云 每年七月十五夜 玩月影於此臺 則月行有度 如銀柱插海 天承銀盤 而上天云。聞則誕矣 而理則然歟。感吟次韻。回過杏亭店 午饔。漆原舞沂周鳳祥家 玩蓮塘。塘中築石

假山 山上植草 依石翠覆 隱然若一蓬壺 而塘廣數畝 塘邊植奇花異草 塘中養百隊銀鱗 於躍聚類 有亭近沼 扁曰何換 又有杏亭 翠翳沼面 門上作鳩巢 有鳩居之 近人翱翔 恃富耽豪 無右所睹 竟日忘歸 此樂何極 暮抵駕洞裴善汝家 卽愼友明進 暫接處也。

五月初一日 渡上浦 卽漆原靈山分界之津也 爲雨所滯 因宿愼克行酒店 又欲前進 乘舟渡津 而飲酒還渡宿焉 夜偶吟 初二日 復渡上浦 午到岐江浦 午饁石谷愼在謨家 宿于新繁權秉謨字伯淵家 一行分宿薛光魯家 三日行三十里 至九曲嶺酒店 卽草溪地也 踰嶺至陝川資資外邨楊時白字春必家 宿焉 優意款待 四日踰舟泊嶺 過心妙邨 踰榆項嶺 見吾道山 偶吟 午饁于蓑邨韓永贊家 宿于平溪柳震煥家 五日過更覓源 偶吟 登籠山亭 次孤雲韻 過女妓潭 感吟 又登白蓮庵後峰 浪吟 遍觀諸庵 六日登馬嶺 喜見故鄉山川 解意放吟 午饁佳巫里金友家 宿于陽巖而還家。

渡泊津

江山到處有前期 風送長洲客到時 分付湖人催暮棹 惇惇行李恐遲遲

宿靈山鄉校

路憊從消酒一盃 忽逢疎雨滿天來 欲做思鄉省定夢 鷺城中夜枕恢恢

宿中峰一致堂書院

雨霽中峰水抱回 先賢遺躅蔚崔嵬 青衿濟濟喬鶯出 白髮栖栖竹杖來 有數何嫌分一笑 無詩還愧酒三盃 園林本不吾遊處 故指征鞭去路開

嶺南樓次畢齋韻

胸豁東南眼掛天 登臨心約夙年前 數聲漁笛孤村外 一抹林梢兩岸邊
月送扁舟今古客 柳含長邸暮朝烟 逍遙攬輿乘風座 曲曲朱欄忽是筵

宿三浪浦象友堂書院

相輝棗萼象高樓 百世芳名冠士流 背後巖撐無北極 眼前船出指南頭
三郎浦上今宵月 五友堂中萬古秋 溟感苔碑寧不墮 故教歸客暫閒遊

鵲院店偶吟

江連野濶勢分環 倒立斜陽水面山 故舉遊筇多點指 天長船出兩岸間

至梁山龍塘店偶吟

山斷河流出出奇 看看去去忽詩思 長程莫使催行李 收拾風烟故故遲

偶吟

白髮南來處 人何怪問之 蓬島徐採後 長養九莖芝

過黃山忽聞鍾聲偶吟

第見烟雲竹樹里 何來午磬忽驚耳 四顧尋聲無問人 天長一色遠含水

登東萊山城向梵魚寺誤入山庵

三掬清溪勝一盃 峰峰曲曲幾回回 山僧若識椎敲意 月下禪門也半開

暮下鷄鳴山至梵魚寺 二首

山是鷄山時不鳴 客非秦客夜何行 報漏鍾聲僧莫打 兩鄉心事月分明
山號鷄山月正明 能知困客早無鳴 一枕思鄉殘夢裏 無心僧打報更聲

登普濟樓

削出芙蓉兩對峰 鷄官佛像露眞容 樓高普濟登空兀 心目隨雲度幾重

洛東

南昌歸客洛東津 半日仙遊一葉身 含情細柳光風岸 有意織歌薄暮人

溫井

溫出蓬壺藥派長 中分二水判陰陽 當年徐子求何物 不老童心我此行

登東萊南門無憂樓

雄鎮蓬萊海一隈 貝雲蒸處見樓臺 鴻歸對馬島前濶 露滴仙人掌上開
受降城邊波息岸 無憂亭下客呼盃 快然願得凌風翰 看盡扶桑伴月廻

更有觀瀾之意再渡龜浦

更登龜浦暮朝船 北去南來似有緣 行人莫道尋常客 雲近蓬萊半化仙

見江邨夜燈 二首

邨珠夜吐燈千點 魚夢波懸月一鉤 三更忽撲江干枕 人坐無心水自流
欲窮詩眼更登樓 坐數冥鴻返古洲 日暮鄉山何處是 烟波江上繫孤舟

登夜望臺

蒼茫坐處洞襟開 天地中間海一盃 河伯望洋東顧笑 三山流去浩無涯

登沒雲臺鄭運殉沒處次碑閣原韻

壯氣驅潮劈破東 石標銅柱屹雲中 丹心不死扶桑日 長使千秋淚幾雄

次懷遠館韻

鵬搏胸海圖南來 快得乘風任意哉 波宿鯨鯢懷遠島 名傳忠義沒雲臺
雷轟萬軸天浮濶 螺点千頭地坼開 莫道人間方外客 壯觀門外壯觀回

至金海府見首露王陵有感

路轉斜陽更有尋 迎神門闕翠環林 山餘七点千年態 水逝三釵萬古心
首露荒陵花影倒 湓城新柳雨聲侵 繁華不滿三盃酒 強醉詩情一笑吟

登昌原觀海亭

騁遠山光觀海亭 淡雲飛瀑繞階庭 若知無恙先賢意 聚白堂虛月上汀

登孤雲月影臺次原韻

移海乘風伴月輝 臺前活水動微微 片雲孤影仙遊石 細雨寒聲客濕衣
遡逐星槎波靜轉 含來詩興雁高飛 年年一度秋宵望 難驗玄機感古唏

자료 9 : 蕉史 洪健厚의 左遊記 [蕉史稿 左遊記]

盤龜臺

初三日庚申 午炊慶州蘆谷驛. 三十里 宿彥陽. 盤龜臺 四十里. 臺如龜盤 特立水中 清溪白石 交映於松篁之間 峰如疊屏 曲曲可愛. 夜設落火 頗喜. 傍有小庵 數納.

抱石清流玉玦然 藏書秀壁竦雲邊 圃翁感慨吟詩日 太史低徊作宰

24 / 港都釜山 제29號

年[有黃江漢臺記] 鄂社鎬豐那易地 仇池小有本通天 亭中宿客朝開
戶 古木脩篁濕洞烟 會園

巨靈鼉背隆然 特立青山不老邊 圃相文章吟玦日 梵王宮殿布金年
吹笙鶴舞巖前石 落火龍驚水底天 安得如渠無俗累 泥中曳尾管風烟
蕉史

通度寺

初四日辛酉 午炊梁山通度寺 四十里. 寺之間架 僧之食指 不可勝數.
密脾荒落不如初 舍象猶爲四百餘 寶塔金輪無鳥雀 蒲牢鍾紐吼鯨魚
蓮花巧鏤羅時塔 貝葉深函竺國書 山海擁麾勞遠役 參禪多愧坐精廬
會園

巨剎南來壯觀初 無量間架數千餘 鎖安鐵瓦支祈象 蝕避金娑脉望魚
庭無霜侵雙妓劍 壁鐫雲護故人書 十方世界吾身小 銀海桐華一草廬
蕉史

梁山郡

宿梁山郡 四十里.
萬竹脩脩翠作林 官樓瀟灑晚風吟 抱琴仙子今安在 七點空浮海上岑.
[駕洛居登王 招七點山岳始仙人 岳始抱琴而來. 七點山在本郡.] 蕉史

梵魚寺

初五日壬戌 午炊東萊梵魚寺 三十里.
木魚聲裡到僧樓 閑說伽藍廢興由 浮世塵根猶未淨 紅粧簫鼓下萊

州. 會園

三韓傳古寺 金井[山名]梵魚生 一路圍松岸 長風捲海聲 佛頭連嶂壁
妓頰帶花明 欲窮千里目 催馬向萊城 蕉史

東萊府

宿東萊附 二十里. 城堞也 威儀也 可謂邊門鎖鑰矣.

萊州直如馬州通 控制邊防兩廣同 帕首鞭刀迎路右 象牙珠貝出溟東
車裳濕盡桃花水 綉扇欹回舶越風 明日海雲臺上去 鏡歌粉黛樂年豐
會園

誰道三山路不通 蓬萊應與此州同 樓臺佳麗江稱左 島嶼迷茫地盡東
波息開雲[浦名]龍聽笛 嵐晴絕影[島名]馬嘶風 蠻商絡繹相交易 市
肆熙熙物貨豐 蕉史

忠烈寺

拜忠烈寺. 宋公象賢 鄭公撥 尹公得信 俎豆之所. 有陷城圖 勃勃
如生.

三壇[宋公鄭公尹公 又有俎豆之壇]屹與一祠高 庭竹森森不染臊 靖
遠樓前埋血碧[樓在政堂之右 宋公殉節地也] 良公畫出儼冠袍 蕉史

釜山鎮

初六日癸亥 午炊釜山鎮 二十里. 登子城臺 俯臨下納諸倉 島影或
五或六 大海環之. 臺有萬公世德勝戰碑 崔將軍影像.

如此城池奈壬年 昇平今日屬歌筵 獵餘絕影春生島 潰後荒譙月暈

天 萬古中丞雙墓在 一時逃卒九邊傳 憑欄擊劍魚龍舞 鎮將樓高海
滿前 會園

五島塵晴幾百年 鎮樓高坐太平筵 山回南下無窮路 海濶東邊不辨
天 戍館蠻供三浪運 子城龜刻萬公傳 未陰毋忽綢繆策 四去龍蛇戒
在前 蕉史

永嘉臺

永嘉臺 臨海無際 俯瞰釜山一鎮 歷歷可記。歷倭館 群倭迎拜於路
左 頭無所着 有一小髻 只以周衣掩身。或有被袈裟者 而體膚多露
見。所着芒鞋 或木屐 而皆無後跟。所佩環刀 或短刀。語音侏儻 而
或有學我東語者 無不仰笑 有欽羨之意。其中長倭 不出觀云。

獨倚朱欄氣欲豪 永嘉臺揖子城高 東開關鎖咽喉隘 南顧憂分鎖鑰
牢 五六島烟迷日域 三千里海息風濤 太宗帳地孤雲跡 異歲登臨定
幾遭 [太宗臺 新羅太宗射帳之地。海雲臺 崔孤雲 遊賞之處。因行
忙路迂 未得登臨.] 蕉史

多大鎮夜操

宿多大鎮 三十里。觀夜操。舟中放砲 城上應砲 城上水邊 一時舉火。
火在城頭人在船 一燈纜學萬枝連 黃衣赤幘驚幽渚 彗孛長旗徙別天
會園

簫鼓齊鳴泛畫船 一枝火應一城連 須臾照耀千珠樹 上下通紅水共天
蕉史

沒雲臺

初七日甲子 登沒雲臺。臺爲東海地盡頭 一望無邊 往往有孤島。若遇嵐晴 則對馬島可見云。若值秋節 可觀日出云。還多大鎮 往返爲二十里。

長空如水淨無雲 馬島迷茫指末分 往跡龍蛇先入想 連村鷄犬若相聞 山形鬩斗坤之柄 人立春糶島一群 歎息臺名終應識 殘碑苔碧對斜曛 [鄭萬戶運 壬辰爲倭所逼 至此臺曰 我名運 其沒於此乎。投海而死.] 會園

地頭高入海東雲 島嶼三分水十分 馬[馬島]不辨涯迷霧鎖 龍[龍湫]應藏壑慣雷聞 胸吞七澤恢恢大 膚合千峰渺渺群 感慨臺名重酌酒 空山片石帶斜曛 蕉史

鳴旨島

歷金海鳴旨島。島在海中。將大雨大寒大風 則必鳴 其聲如雷如鼓如鍾云。

白鹽山積翠烟橫 大海迷茫一島平 如鼓如雷空外遠 不知何處有聲鳴 蕉史

金海府

午炊梁山甘同倉 五十里。宿金海府 三十里。登燕子臺 涵虛亭 謁首露王陵。

興亡飄忽舊京華 年代無稽博古家 燕子樓臺春有草 鴻濛人物浪淘沙 周遭粉堞雲千古 悵悵紅旗海一涯 南望金官王氣盡 納陵寒食雨冥花 會園

燕子樓

金城物色古京華 首露開邦竝漢家 紅袖佳人歌後院 烏衣深巷接晴沙
虎溪草綠春風節 駕國雲空暮水涯 燕子尋常如有感 手栽何處覓梅花
[圃隱詩曰 燕子樓前燕子回 郎君一去不重來 當時手種梅花樹 爲問東風幾度開] 蕉史

涵虛亭

半畝金塘跨石橋 微風吹浪種魚苗 水涵虛處涵虛水 倒影須看月在霄
蕉史

首露王陵

紫纓凝異氣 金石孕聖人 奉置我刀家 六卵剖圓輪 天質就岐嶷 十日九尺身
是爲首露王 駕洛陟位眞 [駕洛我刀等 望龜旨峰有異氣 紫繩繫金合 而有金色六卵 圓如日輪 奉置我刀之家 翌日 六卵剖殼爲六童子 十餘日 身長九尺 遂奉一人爲主 卽首露王也] 東漢建武時 新羅儒理辰 享年何其長 百五十八春 白雲升帝鄉 納陵[陵號] 葬靈輜 伽倻琴猶在 龜旨曲誰陳 千秋會老堂 俎豆走村民 空山禁樵牧 省視方伯巡 憶昔王在宥 風古俗自淳 迹息遺澤竭 一坏草樹塵 異代感黍離 祇拜欲沾巾 蕉史

許王后陵

踰陁生聖女 首露立賢嬪 綾袴呈山贊 緋帆出海津 金城傳異蹟 石塔積凝塵 龜旨荒陵在 殘花又晚春 [許后 阿踰陁國王女 名黃玉 號普州太后 初渡海來時 首露王見緋帆 茜旗 自海而南隅指北 設幔殿

候之。后解綾袴 贊于山靈。王迎立爲后。陵在龜旨山東。娑娑石塔凡五層 色赤斑 雕鏤甚奇。后來時 載船中 以鎖風濤。]

三浪倉

初八日乙丑 午炊密陽三浪倉 四十里。時值漕納 舸艦雲集。

浪淘沙岸細飛塵 渚柳汀花雨後新 牽馬子猷官似是 同舟元禮客何人
二旬休暇窮觀海 千里周流倦問津 好箇江山漕轉地 昇平刺史伴行春 蕉史

嶺南樓

宿密陽府 四十里。登嶺南樓。初九日丙寅 使家冒雨發 命余後 聽妓樂。仍留宿。

金碧樓明蘸水天 嶺南風物落樽前 烏紗影壓江鷗上 紅杏花飛駟馬邊
芳杜春深連岸雨 垂楊人隔數家烟 黃昏易得佳期遠 獨自含情倚錦筵 會園

水上樓陰水下天 美人窺鏡碧欄前 野長高鳥橫空半 橋亘虛舟繫一邊
粉堞周遭山入畫 黃茅隱映樹生烟 枕流[軒名]睡起凌波[閣名]步 十景朝回錦繡筵 蕉史

拜別行部書帳

初十日丁卯 午炊清道榆川驛 三十里。宿清道郡 三十里。與主倅趙稚敬秉穆穩話。十一日戊辰 午炊慶山縣 五十里。還本邑 六十里。凡周行一千三百八十里 費二十一日。

千里行程一日休 江南春色雨中遊 車徒象矣征旛動 歌管紛然倦馬

留 自是將軍寬禮數 敢言太守足風流 遙知今夜伊西[清道古號]宿 清
夢應隨月在樓 蕉史

자료 10 : 東海 金勳의 南遊錄 [東海集 권5]

山水也 師友也, 勳畢生家計. 然自諸洲港開路 不脚頗十許稔. 歲
庚寅以首夏初旬出. 十三日宿光州平章洞. 吾宗會聚斯堂. 十四過昌
平 遍松江亭息影亭芝谷及瀟灑園. 十五日 登同福勿染亭 羅滄洲茂
松所建. 十里許 有赤壁 傍有望美亭 進士丁滄浪巖壽所建. 十六日
訪順天松廣寺 見所謂能見難辭者 銅器五箇 下上包匣皆容頗怪. 沙
門外築壇 內有香木 普照所植 枯久. 僧傳普師還生 則復葉云. 造化
雖巧 根朽者 豈有回春之理. 十七日 訪天子庵. 法堂後檀香木二株
木理斜纏 大幾二三圍餘. 一普師杖 一天子杖. 天子即金帝云. 其說
則誕 其木則非. 世更有異哉. 蓋松廣一山 朝家所取主材 故遍山栗
木參天. 問仙巖寺 路崎嶇 寺巨與松廣相掎 庵亦六七. 十八日 歷求
禮邑 至華巖寺. 寺繫智異山 宮殿之雄 似勝松廣. 有傳新羅金生筆.
僧徒進茶湯 此茶是陽羨舊味. 按三國史 新羅時 得茶種於唐 命蒔智
異山. 十九日 到漢水川 一名蟾江. 越毛介峙 入鷲谷寺. 朝家取主材
於此. 二十日 訪七佛庵 在高峯 甚幽深. 左有影池 又有啞字房 四
邊凸中凹 在回祿前 不火常煖. 升一下寺而南 層峯疊巒 幽壑邃洞
璀璨環列 呈奇獻妙. 幾里 路邊大巖 刻三神洞 孤雲筆. 到溪差上
有新興寺舊址 溪前巖刻洗耳岩 亦傳孤雲筆. 由此而上 碧宵嶺義新
檀川細石平田 又其上 天王峯. 方夏草樹羃絡 未易往. 往幾里 入國
師庵 度一壑 最上有巖刻喚鶴臺 孤雲筆. 又上幾武 有馬蹄痕 又有

馬尿痕 兩痕何其丁寧也。是名馬跡臺 傳孤雲馳馬處。喚鶴或信 而馬說可疑。左下是雙谿寺 最多孤雲筆。大字則大雄殿 八相樓 八詠樓 青鶴樓 及寺門所揭三神洞 雙谿寺等字。小字則丈餘大碑 立法堂前。寺下路傍 左右大岩 一刻雙谿 一刻石門 亦皆孤雲筆。字畫甚大。金濯纓曹南冥 或以爲大如鹿脰 或以爲兒童習字樣。寺上一壑 謂青鶴洞。左右有青白鶴二峯。卅四 由三台三神孤雲影堂村 抵蟾江 統稱華開洞。孤雲詩所謂 '東國華開洞 壺中別有天'者 是也。德隱傳一蠹先生舊址 墻垣磊石猶存。或云水店洞者是。濱江而向岳陽。岳陽三韓時置縣處。所謂姑蘇臺姑蘇城 在山上 下有寒山寺址。又一隅有鳳凰臺及岳陽樓址。前有洞庭水。居人謂某某是八景云 而只憑口頭 無足掛眼角處。世之盜名無實 豈徒此乎。卅五 入蘆田 又有青鶴洞。越回南嶺 晉州地。卅六 月橫訪趙監役性家 號月臯。同門 見輒款洽。涵月取水二亭 翁所新構 景致頗佳。廿八 入邑 登臺石樓 樓甚宏雄。菁川一江 繞抱東流 叢竹千林 密擁前立。詩板儲積 申清川維翰七律爲首 臺石樓下三壯士詩絕句 明是崔兵使慶會作 而揭爲金鶴峯詩。三壯士明是湖南金健齋千鎰 黃兵使進 及崔兵使 而嶺人謂爲嶺南人 而鶴峯與焉。怪哉 嶺人好勝之甚也。岩上立論介旋門。一介賤妓之立節 何其卓卓如是。宜乎炳烺今古 而尸祝之也。土人說道 每當六月廿九 戰亡舊日 天必有雨 而江水赤沸云。五月朔 過鎮海漆園 到昌原地。浦上有石臺 築而墩之 名月影臺。石長丈餘 謂是孤雲所立 亦與孤雲身長同云。有四株樹 謂皆孤雲手植。一馬場許 尺山洞後 有舞鶴峰。到頭結咽 更起峯 高特超拔。孤雲胎基在此。尺山咫地 有馬山浦 是大浦港。三日 入金海邑。後山插天特垂作基。有涵虛亭 鷺子樓者 古闕墟 謂在其間。右有鄉校 校下最低平無氣脉處 樹林密立 內有陵。陵大如臯。碑曰駕洛國首露王陵。四圍以瓦堞 左右屬

舍柳比。中有崇善殿 御額。置參奉 以金許二姓爲之 降香祝冊命祭。殿前有會老堂 濯纓記 又徐四佳及諸賢詩。由陵而上一牛鳴地 接山脉 是妃陵。碑曰駕洛國首露王妃普州太后許氏陵 雙行書。崇報齋在前 龜耆峯在右。有土城高丈餘者 自校傍山上 繞于許陵前 間間崩碎而色甚赤。傳是國都時所築 許妃以甑蒸者。許陵上一脉 屢斷續 至邑前聳一阜 而大巖錯列者 鳳凰臺也。野中無踪 起一墩者 招仙臺也。又有突立七峯 杳茫星羅於野際 是名七點山。以三川而間之 是名三叉江。美哉都乎！主山傑立 如列屏障 龍虎拱抱 如捍肩臂 野勢無際 風氣遠通 實天賦名基。閭閻之接也 人物之華也 金陵其號 想亦無愧 而昔時景色 無處寓得 所依係者 惟一半顏赤城耳。七日 渡梁山龜浦津 有火輪船 倭酋來往。行見湖嶺商賈 肩磨路填。盡是倭館通貨 質我財 易彼物 何事於斯 耗國尾閭 此可以見。宿釜山 東萊地。八日 見路傍有泗溟碑閣 鎮右山底 有鄭公壇。李忠武舜臣之水戰 皆出於鹿島萬戶鄭運 首事嘗試之力者 此公卽其人。鎮後小山 有萬公壇。壬亂時有明經理萬公世德碑 是名子城臺 字泐未詳 謂是萬公親勒。由釜山 沿江側 山腹多樹碑白色者 皆倭人先父祖亡於我地者也。近館而濱江 有清人家二 甚侈 非如我國瓦家。最下接水而家者 館也。亦甚侈 柱桷金銀也 窓壁琉璃也。東西二館 梯接柳比 人物又甚繁殖。大抵清洋倭 服色皆以青黑 而清人則頭髮四邊削 中全束 而垂於後趾 末係以唐歧。倭人則男削而無有 如我國僧樣 女則存髮而粧髻於後。有漆齒者 或有否者。遙望對馬島山 明滅於雲際。十日 迂路訪華池山鄭墓。此墓行路指點 雖婦孺咸誦 以爲東國名墓。上下左右 碑碣錯列。高麗時 東萊鄭氏始祖 戶長文道所葬。後山自金井山 到此垂頭 原甚深厚。子坐午破 左枝自本身蜿蜒而降 間間突起 而止於前。右枝亦自本身逶迤而下 一枝內而進 又一枝亦如之。

又起二支 遮爛於前 密密擁護 置水不漏. 案外則釜山鎮後子城臺 如印而圓立 外又有海際高山特立而秀者三 又東南邊有山如偃月 而立於水口. 十一日 入客舍. 哭而變服着白笠. 蓋自晉州界 始聞大王大妃趙氏昇遐 而望哭矣. 今乃白於此者 行到此境 此境人始着白故也. 噫. 國恤中遊觀 非不知未穩 而既已出久 未易遽還, 且於翁翁於國恤內喪遊山 傲晦翁涕喪遊玉洞三峽之事者 不其得罪於法門否. 入謁宋公壇. 噫. 倭賊所題忠臣宋象賢之墓者 此耶? 君臣義重 父子恩輕 語 不覺淚誦. 左右多有同殉諸公位. 北五里 路邊有溫井 左右兩湯 其熱如蒸沸. 佔畢齋詩 可以熟鷄子 果非虛言也. 二十里 入梵魚寺. 寺後金井山 上有井 謂古有金魚 故名. 實大刹. 十二日 過梁山邑. 路邊見車巖. 在昔新羅都時 輪牽磨軋痕 尙在於巖 橫而滑 在路左右. 嗟乎. 不朽者 莫過於口也. 尋通度寺. 鷲棲一山 雄作洞府 左右環擁 國中首刹. 大雄殿前 簷以銅瓦 間又以鐵 後有大石塔. 唐初慈藏法師 入天竺 得釋迦頭骨及舍利 埋于此以鎮之. 牛鼻巖 謂時聞牛呼吸. 慈藏庵 有金蛙一雙 在岩竇 人或有見. 僧說荒誕 蓋不足信 而寺之雄 甲於域內. 庵凡十二 佛之大宗家云. 十四日 由寺後 越二嶺 嶺底是密陽表忠寺. 入門飲靈井水 味冽 謂愈疾. 寺古有院 賜額. 西山大師名休靜 一號清虛 本姓崔氏. 上佐二 一惟政大師泗溟堂 又號松雲 俗姓任氏, 一騎虛大師 名英圭. 有壬辰錄 泗溟文集 及所佩刀 長尺許 光鋸若新發於硯. 教旨及父祖曾三代追贈教旨 所着袈裟, 又袈裟所係金二枚, 又萬里鏡 鐵爲之, 又長衫 又鐵鐸 又所食鉢盂 五箇 至今傳守不失. 十五日 入邑. 邑後山 吐餘氣 平坦作基 是爲嶺南樓. 群山擁揖 大野紆廻 長江一帶 橫繞樓下 酷肖巴字. 棟檻之傑 風烟之淑 嶺南第一 似非妄評. 樓下竹林 有阿郎祠. 阿郎未詳誰氏誰女 而貞烈之膾炙 不待余言 行路爛誦. 如所謂‘阿郎豈識嶺南

樓東人詩一軸 已可以想像矣。十六日 路傍有閣 見其內有佔畢齋金先生神道碑。驚問土人 路內堤大洞。先生誕基 有古木數株 先生手植 村後有先生墓 前山有先生先墓。噫嘻異哉。余嚠墓先生久矣。今焉此見 實料意外。天翁解余好古 使之導之耶？過水安驛 有僧大將泗溟碑閣。由此屢涉厲 入極峽 村名古羅里 有泗溟胎址 胄印及佛形巖相應 谷上左右 有泗溟父祖先墓 表忠寺僧徒守護。此見亦是不偶。十七 過靈山昌寧。廿日 過宜寧地 村落倚峽 生涯付楮 域內紙物之出爲最。宜寧聞多古蹟 閭閻山 退溪手筆。山下慕義村 眉叟遺址。鼎巖 元曉師胎址。世干村 郭忘憂再佑胎址云。卅一日 入三嘉地 平邱村有孝子碑。草溪之鄭 有諱玉良 母嗜棗茶 恒繼朝夕。一日茶罄 時冬沍 伏廟庭號泣 有七棗樹生 結子皆白 載三綱錄。到兔洞 訪鄭載圭厚允 蘆沙門人 艾山號也。門徒甚盛。卅二 遊雷龍亭 卽曹南冥六十年講道之所。有映波臺盪水石 村有胎址 及所讀鷄伏堂 野名電坪。又有孝子碑。此孝子 仁川李氏昱也。李貧甚 菽水屢闕 涕泣不已。一日大雷電 金櫃降前 玉粒盈內 用常不縮。坪之名 以此。南明記實。廿四 往觀陝川之黃溪瀑。瀑在絕峽 墮幾十丈 飛流鬪撞 如雷霹 如虹霓 如銀河 如玉雪 恍惚眩轉 眞壯觀也。廿七 臨發 厚允以答問類編校正事 挽余過夏。遂留期德村。訪許南黎愈退 而淵洞訪朴都事致馥薰卿 晚惺其號 時在許性齋傳刊所。卅日 踰尺旨嶺。六月二日 遊換鵝亭。亭在邑後鏡湖上 水清如鏡 前有會稽山 尤翁記迹。傍有洗硯池 修禊亭。三日 過新安驛 丹城地 有江城君文公益漸神道碑。越其野 有墓 往省謁。白馬山城在覓後 山高不群 上有戰陣遺跡。訪校洞 有齋曰丹山 溪南崔瑀民元則 與其伯植民 呻咕其中。四日 偕遊新安書社。有宋性潭煥箕所撰碑。五日 又偕遊水月洞 有十八景石潭 埃德邱 玉女峯 水月臺 照寒齋 石門 流雲庵 臥龍瀑 振鷺瀑

隱屏潭 鼓樓岩 桃花潭 仙掌 仙遊洞 玉流洞 流觴曲水 武陵峯 大聖山 統之曰仙遊洞。六日 具酒飯 往觀行憶 十數員。七日 渡新安江 江石側 築枕肱堂 堂卽星山李公夢賚所構 金溪湖從遊也。尋放牧里李氏隴雲齋 遊龍巖 臨江可坐數十百人。八日 與元則十數人 營翫德山大源之勝。早發丹城邑 憩白雲洞 有斷俗寺舊址 政堂梅古植 水石頗擅一省。幾里 有一大川 是德山之德川下流也。如碎銀 如照玉 浮於水面 玲瓏纈眼 眞絕觀也。上有首陽山 李清江濟臣陶邱臺 在焉。小入路傍 大岩刻入德門。又入幾許 一臥廣巖 刻濯纓臺 愛水色降而裸浴 涵乎泳乎 不覺日已西矣。過清聖潭 逍遙於叩馬亭。高麗徵士韓錄事惟漢遺址在此 世人稱絲綸洞。蓋取韓詩‘一片絲綸飛入洞 始知名字落人間’句語也。傍川路入十許里 洞府敞闊 足可置一縣 中間古松流水之上 有亭翼然 是南冥山天齋也。南冥自三嘉移此 使子孫菟裘焉。壁藏四聖賢遺像 孔子濂溪明道晦菴 朝夕所瞻慕者。壁揭敬義二字 卽南冥平日爲主者。常曰敬義吾家之日月也。九日 參拜四像 謁家廟 訪問遺物。惟所佩刀三柄 至今函奉 鏤以‘內明者敬外斷者義’。遂印置行囊。偕嗣孫上墓 墓在家後壬坐 成大谷運撰碣。十日 游碧玉潭 水色巖形 頗可目。行到後川店 買鱸作膾。德山之鱸 吸蓼水 味擅省中。至送客亭 亭卽南冥每於盧玉溪禳 吳德溪健 林葛川薰 諸賢見訪 必此樹下送之 故名。抵石南 白雨已銀竹矣。十三日 至面傷村 玉溪諸賢 別南冥 數數回顧 不覺墮鞍而傷面 故名。野人之言 奚足信哉。歷浮雲亭 入獐項 卽大源洞門。溪流隨雨添漲 褰裳越涉 到寺。寺別無可觀 但幽深而已。庵左所謂龍湫者 石甕者 因大雨 瀑勢尤猛 雷霹砰訇 兵馬喧闐 殆不可以指諭。奇巖怪石 以瀑故不盡露出。然觀於略露 亦是一巒全鼎。十六日 至德川書院遺址。冥翁昔享。越公田峙 宿古武陵 權雲漢舜卿。十七日 同舜卿往月橫。十八日 發

雷龍亭 行偕元 則翫江樓。樓古十二 皆墟 澄波練繞 層崖劔削 上刻赤壁 尤翁書。下有嚴陵灘 上有嚴陵臺。丹城素稱山水窟 而此間景像 南冥詩‘十里官楊青倒水 萬傳雷鼓碧連霄’一聯可想矣。植杖巖南冥杖屢處 在路邊。霞標亭 沈氏別業 在漢濱村。入雷龍。自升九後 校類編。七月十七日 至培養村。村古江城君所居 有手植銀杏。村有君孝旋 旋上有君初種木棉田。井七 計統營錦山行 趙性宙河祖憲十數人。八月初吉 過龜岩村 泗川地 參議李龜巖禎 退溪門人所生居處。有大觀臺。抵玉泉寺 晉州地。三日 過固城邑 至統營轅門 門去營十里。四日 入洗兵館 館甚雄大 矗石嶺南等樓 容乎其中 人言信矣。山脉自轅門 處蜂腰鶴膝 屢斷屢續 至營後 起一峯 下設景武堂 統使居之。左右山勢 秀巒紆纈 作龍作虎 前遮後擁 豈料地盡頭 更有此好江山乎。自龍虎斷而復峯者三 海水一泓 匯滄於面前 人戶稠密 挽河千尺 受降等樓 縱橫之。龜船三隻 忠武所制 船有門 如龜形。右越一壑 有忠烈祠。院貌宏雄。五日 開鎖入院 拜謁 碑書‘有明水軍都督 朝鮮國三道統制使 贈領議政 忠武李公神位’。左右長屏 畫皇朝八賜。八賜者 皇朝印 虎頭令牌 鬼頭長劍 斬刀 紅小令旗 藍小令旗 督戰旗 曲囉叭也。院有碑 李鰲城恒福撰 尤菴書 文谷金壽恒篆。又陰記 尤菴爲之。營前閒山島 有制勝堂 亦祭之。院下湖上齋 亦以其忌日 十月十九 祭之。噫。忠武 我東人 雖家尸戶祝 實未有不可。壬辰之燹 微此公 幾乎靡孑遺矣。下院而由右 緣海里許 有鑿梁橋。忠武囚倭船於此 期曉擊 夜間 倭鑿而船之。今橋其上 由海坪村十里 有龍華寺。六日 還忠院。營有二古跡 不可以無記。世有裴座首二女 長華紅蓮 見死其繼母 統相全東屹爲解其冤 二鬼長隨全 全平生多被其鬼助 辭統時 爲室於今景武堂後而留之。事詳今所行稗說。又海坪村 古有烈女 姓名不傳。其夫溺死 父母覓不得 女溺夫所

溺處 朝視女握抱夫屍 浮於水 至今傳爲海坪烈女. 七日 出轅門. 歷固城邑. 九日 沿海十數里 翫床足 一云雙足. 山盡處 一大高巖 接海撐立 中及邊有竅 通風日 可立數丈旗 可坐數百人 波濤衝入如雷 名擅省內. 十日 卽秋分也. 忙於看老人星 催過臥龍山南陽村 入三川浦. 泗川地 大浦口也. 上有大坊浦 涉遍五島 入昌善島. 十二日 渡知足津 入南海境. 見所謂錦山者 一二青芙蓉 先來眉睫 有三花洞 峽行憑崖 披草樹 攀石磴 顛伏艱苦 閃登最高頂 天氣塊虛 海色沒量 顧眄瞻望 飄飄乎 不知此身在人間世. 自惟東華浪仙 五旬五陶輪界 窄窄胸次 快得破了矣. 念昔於金剛東海 謂幾破盡無餘累 安知餘累猶有未破者存. 抑又念生長頑土 死食酒肉者 三萬六千場 孰非負塵債 王思任之見山 則癡倪迂之當水而淫 余亦不免也夫. 俯南徐下 層岩峻石 若龍蹲而虎踞 凜乎其不可犯者 是元曉師所創普提庵所在也. 有一沙彌居焉. 倘微上山時 豫裹數斗粒 未免冷十數人兩日之料. 左海地盡 南坼天空 未知何者爲吳楚 何者爲泉漳. 祇恨眼力之不廣. 此間所謂景致不一 龍窟 梯而上 則巖有竇 黑黑乎未窺其際. 聲音窟在龍窟側 以杵擊石 地底洞洞 律呂相應. 甘露水 在相思岩下 下上皆岩 岩有白盛水 水未知源何而來. 九井巖 巖上九臼 皆貯水. 虹門 巨岩中通如門 可容人行 如是者二. 將軍水 在底. 徐市過處 壁巖難接處. 傳有此刻印 而見之完有鐵畫 未詳何樣字. 庵後上頂 築石爲峯臺 臺傍矗岩 刻‘由虹門 上錦山’ 挾刻‘嘉靖’ 下迷難詳. 傳是周慎齋世鵬書. 又所謂扶巢岩 仙臺 洗眼泉 鷺子石 貓石 鼠石 龍頭石 石鷄 日月峯 香爐峰 我太祖山祭壇 忠武公彎弓洞. 又月氏國所來竹筒. 竹筒內 月氏金佛. 粧名之奇 僧家本色 奚足盡信. 山下嘗珠浦 大漁戶也. 數里許 彌助項 僉使鎮也. 所謂島者 或斷或續 如蓮花像 名蓮花 其次浴池斗尾 并產鹿 孤立如黑子 名世尊 胸虛有竇. 第所

謂老人星者 攷天文 春分夕 沒于丁 秋分朝 出于丙。僧說二分際始現 自後久有云。晝放子午鐵 立石標於丙 徹曉看驗 有一星 大如啓明而稍紅。初看疑海際漁火 上下左右 不有他星 獨於地頭水角 特放光芒 次次移于丁 至日光昇而漸迷不見。如是而候之 洽洽乎二曉。夙願於是焉遂矣。蓋錦山素以楓名 而卅許年前 統相某 得朝旨 環一山而楮之 可謂殺風景甚矣。楓則雖然 而巖窟之異 水泉之妙 足令人駭矚。然是其例也。今行之最 惟一老人星耳。見之者 壽也 說豈可必乎。不登此 則不見, 雖或登此 不得其日 則不見, 雖得其日 不有雲霞乃見 是以難也。今行殆天借乎。下山分路 入龍門寺。十七日 渡笏浦津。三十里 順天地 過興國寺。十九日 登喚仙亭 由同福和順 隔晦而還。

馬山浦奉和

詩喉亂詠自成歌 堪愧名區白首過 十里尋眞仙分重 五更打話客緣多 閭閻撲若滕王地 滄海流通夏后波 說與湖庄才子輩 此間光景果云何

金海邑

故都經過感何如 觸目依稀駕洛初 香祝聖朝崇祀典 風流太守好樓居 山雄野濶基尤大 塔破城頽跡但餘 愛翫江南佳麗板 夕陽移榻又涵虛

倭館[在東萊]

東西兩館逼江干 異樣鋪羅不忍看 腥穢或嫌來觸汚 夕陽醉上鄭公壇

鄭宋二壇

二公殉節處 設院又修壇 蹒跚非不窘 催杖步尋看

溫井

庶幾仙遇蓬萊境 及到溫泉藥在茲 五十五年塵染汙 自今洗却痛無疵

梵魚寺

山行記以磬聲聽 上有梵宮大闢庭 魚爾倣何奇造化 丁寧石面自形成

滯雨梁山

連日午風雨不休 危波隨處路堪憂 天嫌濫盜江山勝 僻館孤燈沁沁留

車巖

行人爛說車巖路 輪牽交磨左右存 記得新羅全盛日 繁華人物湊歸痕

通度寺

諸佛宗家謂此真 域中應罕與之隣 鷲棲繞洞青依舊 龍血泚巖赤似新
三十三天兜率界 五旬五歲壯觀人 袈裟舍利傳何世 摠知如來去後身

表忠寺[在密陽]

入山先問泗溟忠 休靜英圭享亦同 那說疊祠今見撤 千秋史策耀吾東

嶺南樓次板韻

縹緲危樓聳倚天 森羅萬象盡當前 蹟遺王劫夕陽外 景在今賢風月邊
澄水迴巴仍作海 曠原平楚渺凝烟 嶺南第一傳來語 遙想千秋幾盛筵

過佔畢齋先生墓

平昔嚶嚶慕 今來過古塋 我東儒一脉 誰不自先生

자료 11 : 小隱 李禹善의 南遊錄 [小隱集 卷2]

歲己未 卽吾花甲之翌年也。素有山水之癖 欲學司馬子長之遊者久矣。是年八月 理裝南征 倩君金聖煥 亦從焉。卽抵廣巖停車場 因以點心 共登午車 至密陽龍頭 暫歇。又過三浪院洞勿禁 暫停。至龜浦 下車 日將西矣。訪李參奉君瑞 寒暄纔畢 買一大鯉 作膾脍酒 生鱗滋味 猶勝於玄眞子之桃潭細鱗也。主客相酬而罷。翌日 與主翁臨江徘徊。是日也 天氣明朗 秋風淅瀝 玉尺金鱗 隱隱游濯于波中 錦纜牙檣 遠遠相接於江邊 泛中流 任所如 漁歌互動 汽笛頻發。于斯時也 楚客吳商 南來北去 無非榮利中競爭也。噫。人生事業 固止於此乎。人生百年 誠是蜉蝣 天地無一事可做 而與魚蝦草木同朽而已哉。盡日玩賞 南州勝狀 在龜浦一區也。竊觀一邊紙房 崔嵬宏壯 器械所與事務室 羅列乎一局 略百餘間也。細看密察 則奇形怪物 無非銅鐵器鎖鑰也。蘆草雜物 摠是水火氣產紙也。造化之機 看之難測。口號一絕。仍以留宿。

翌日 卽登已車 抵到釜山停車場。午後 卽向海岸 遠遠眺望 波濤接天 蜃樓浮空 澆漾萬狀 難可形言。以杖擊水 而各成一絕。翌日 登電車 至溫井 沐浴而歸。胸襟灑落 精神爽快 尤倍於平日也。又吟二絕。早登自動車 卽抵機張松亭店。此日則九月初三日。仍以留宿。

翌日 卽呼賞馬一夫 抵到瓦余洞 主人吳承旨惠根三兄弟 在家矣。欣然迎之 一見如舊。永夕譚話 以肴酒相酬。此亦殘年不易得之勝會也。蓋其門戶之昌大 接賓之規模 甚是周密。留連數日 家家供饋 無非水陸品味。與諸老伴 登文山亭 嘯咏徘徊 其爲先之誠 遺後之計 吁亦壯哉。又登義勇堂 奉讀板上記 則認是龍蛇錄功臣吳鴻也。其忠義殉節 孰不欽仰哉。謹次板上韻。與主翁唱酬有日 忽地相別 衰暮別離之懷 奚獨古人關雲渭樹也哉。強吟一絕。與其弟昌根奉根參奉 聯鑣作行 卽下溫井 暫憩 又浴藥泉。飄然氣像 恍若涉蓬萊 登閨風也。溫井主人金顯一君 細細指路 終日玩賞 奇花異草 名禽怪物 在在纈眼。乃是河司馬山亭別區也。一杖逗遛 四韻俱成。

一宿後 與主翁 各吟別章。卽登電車 抵到東關 三十里 則亦不過一瞬間也。適逢影島主人金成七 隨處指視 則滿眼光景 輝映左右 鑿山填海 變作幾百丈平地 則人力之重大 財用之無量 何可盡記。且海上板廳 廣布上下 彷徨良久 神精昏迷 不可整定。板頭來泊火輪船一隻 號曰高麗丸也。如峰如畫 聳出中霄 高大形像 口不可形言 目不可盡睹。卽吟一絕。往觀石油鐵筒 則倉庫機械 不下於輪船也。卽呼一絕。夕飯于成七家。出門四望 則水光接天 月影滿地 海關十里 千門萬戶 摠是瑠璃樓閣也。燈燭玲瓏 舳艫漾海 此夜光景 無盡無涯。呼樽取醉 詩興洋洋 各吟四韻。

翌日 登鄭忠壯公殉節遺墟 感吟一絕。回筇渡海 復至關里。此日則古人落帽之佳節也。龍山之遊 豈獨專美於古哉。與數三老伴 訪一等旅樓 適有絕妙兒女 把白玉一缸 開繡紋雙榼 別肴滋味 色色適口 舉盃相酬 遊樂陶陶。此日風情 誠不偶然。開窓視之 不覺日之昏曠矣。忽唱驪駒一曲 此非陽關之路耶。一盃二盃 勸君更進 惜別之懷 一筆難既。各呼別章一絕 以示後日不忘之意。噫。於山見泰嶽 於水

42 / 港都釜山 제29號

見黃河 於人惟未見歐陽子爲一大恨也。因以南遊錄 忘拙構草 以供後日臥遊之資爾。

浴東萊溫井

蓬萊從古擅名區 又有溫泉一世傳 今來滌盡全身累 病骨如蘇意豁然

贈溫井主人金顯一

金井山前溫井里 瓊樓石室比爲隣 蓬萊仙子君知否 藥水時時養性真

汽船 二首

如峰如畫聳中天 商舶漁船不敢前 四海橫行無一蹶 此間造化幾人傳
大海如天任去來 風風雨雨不能摧 銅環鐵鎖重重立 玉戶紋窓疊疊臺
泊處如翻千丈水 行時忽送一聲雷 製造神功誰得識 多年研究出人才

登絕影島鄭忠壯公撥殉節遺墟感吟

鄭公殉節昔何年 落日荒臺晚感深 水碧山高風不死 吾人孰不喜登臨

影島月夜謀酒

南來壯觀最茲州 關塞深深夜氣晴 電燈十里花千朶 海月三更酒一觥
品物家家多別產 粧樓處處惹嬌情 妙舞清歌開繡戶 幾人到此誤平生

吳憲根兄弟臨別各賦一絕

人生離合本無常 離則傷心合則欣 雲樹遐鄉相送後 何時樽酒更論文

次義勇堂韻

丹忠素節亘蒼天 景仰高風已有年 東方壘土三千里 一體功臣廿四賢
林泉別業將貽後 山斗威儀宛在前 壇享春秋修契事 斯文崇奉永相傳

자료 12 : 韓齋 鄭奎榮의 釜山紀行 [韓齋集 卷3]

到露梁

去歲何時過此灣 船童迎拜認衰顏 滔滔利市人爭競 底事農來底事還

過統營

忠武祠前野草肥 樓臺城郭昔時非 龜船古制無人解 滿目桑瀾淚濕衣

泊馬山

馬山從古最繁華 楚楫吳檣簇簇斜 依稀夜半秦淮曲 月影臺前賣酒家

渡洛東橋

大嶺之南洛水東 晴空白日起長虹 臨流欲度還瞠眼 鐵架銅標是鬼功

抵釜山

電閃飛車直抵關 鮮鮮萬物各呈顏 至寶元來藏不市 誰知白壁在深山

浴溫井

源頭坎六遇離三 金井溫如玉氣涵 淨洗心身無點滓 蓬山秋夜做眠甘

過福田亭

44 / 港都釜山 제29號

龍山西畔翼然亭 花木周遭似彩屏 日日翦裁心獨苦 何如雨露任天形

棧橋

脚底溶溶漾夕輝 銅標百架費神機 夜泊橋頭船簇簇 青龍黃雀揭竿旂

噴水機

假山玉立彩雲端 噴沫廉纖極意寒 似解恨人腸肺熱 長時飛雪灑珊珊

水產館

白石方塘活水深 鱗鱗鬚鬣尺而尋 千歲舊遊蓮葉物 却來何事此浮沈

鬪牛

燕城昔夜怒奔牛 此地爭雄不讓頭 六洲紛競今何世 獸畜猶然欲自由

演劇

尤物猶然凜烈霜 龍城絕調動牙香 依稀廣漢樓前水 遊子曾年不可方

鴻門宴

宛覩鴻門大宴開 盾杯玦劍出班來 木蘭名將顏如玉 卽掃腥塵上舞臺

寫真

黑窣窣中潔潔身 冠裳鬚髮宛伊人 恰似前川明月下 一時粧飾露天眞

汽車

黑焰構空紫電晴 停如蟹步動驢鳴 其脊穹隆其械活 朝昏雨雪不關情

造冰

氣翕薰蒸徹底清 始知寒烈薄而成 忽把爾詩驚節序 誰家頻送鑿冰聲

填海

海爲平陸陸無涯 土簣石拳日以加 可使魚龍移窟宅 化翁神肢亦堪嗟

金剛寺

佛教原從海外來 蓮花滿地道場開 誰爲釋也誰爲俗 可笑荆緇一樣裁

伏兵山

伏兵山下野人畬 刁斗無聲夜搗虛 此疆爾界今烏有 堪愧腐儒但讀書

夜市

龍燈蓮焰到深更 便是江南不夜城 惟有黃花時晚節 臨風三嗅若爲情

和贈盧上庠 泰鉉

雲林萬壘未藏名 儒雅風流範後生 樽酒黃花秋不盡 樓臺粉壁夜猶明
誰人能有回天力 此日重驚擲地聲 惟有瑤琴餘古調 囂塵以外海山清

用田家韻贈釜山學校校師

會事逢迎幾大家 天公解意雨斜斜 繡燈夜送樓臺月 羅綺晴驕陸地花
俯視乾坤猶似窄 相思海嶽亦無遮 多謝夫君珍重意 疏才其奈鬢絲華